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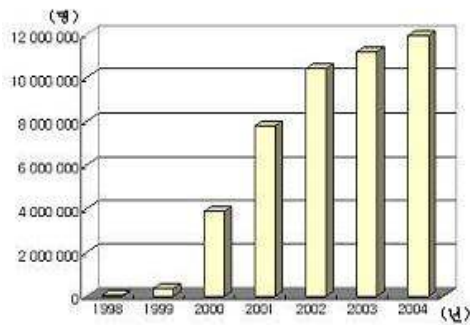
## 논술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시다

한 문제를 풀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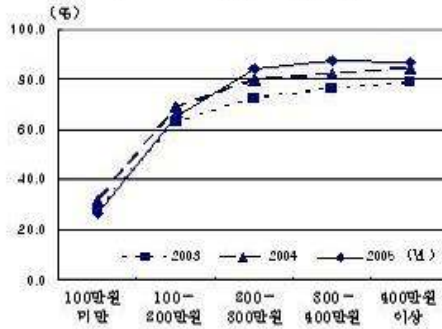
마지막 편지입니다. 올해 열 번 정도 편지를 계획했다가 미뤄둔 편지를 한번에 끝냅니다. 편지가 한 40여장 되는 듯 합니다. 게을러서인데 두루 양해 바랍니다. 이번 편지에서는 논술 문제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를 밟아 풀어보려고 합니다.

논제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읽고, 답안을 계획하고, 철저하게 그에 맞춰, 정확하게 쓰는 것이 논술의 기본이라고 첫 편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편지를 잘 읽으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ERCISE



〈표 1〉 인터넷 가입자 수 증가 추이



〈표 2〉 소득별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이

〈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통적 지식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지식이 정보로 전환될 때에는 대개 의미의 굴절이 일어난다. 이런 까닭에 지식과 그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한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정보사회학자들의 설명을 요약하면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지식’은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사유와 실천 활동을 통해 부여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의 집적물이다. ‘정보’는 잠재적 수요자를 위해 지식에서 추출한 데이터의 기술적 가공물, 이를테면 지식을 요약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의 집적물이다. 또한 지식은 체계성과 복합성이라는 그 속성상 지적 훈련을 거친 엘리트만이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정보는 대중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전달과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켜 주며, 저장과 가공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 인터넷이 학문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된 것은 그것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정보교환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정보사회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정보의 경우 제공자와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런 일은 실제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한 자가 특정한 목적에 이를 악용할 위험 역시 상존한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는 것처럼, 정보의 활용에도 양면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나〉 현대를 대표하는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에 따르면, 플라톤 이후 과학의 정당화 문제는 권력의 정당화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이를테면 ‘무엇이 (과학적으로) 참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무엇이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결정하는 문제와 더 이상 무관하지 않다. 과학과 윤리학, 과학과 정치학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 시대의 권력은 그 어느 시대의 권력보다 더 집요하게 과학적 지식, 나아가 정보 일반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싶어 한다. 특히 미국의 9.11 테러 사건

GUIDE

문제를 읽는 순서는

〈논제→제시문〉

이다. 여러분도 좌측의 문제를 논제부터 읽어야 한다.

GUIDE

추리소설 한 편을 읽듯  
논술 문제들을 정복하라.

논술은 의외로 재미있다. 이는 논술학원에 나와서 막상 수업을 들어본 학생들 대부분의 반응이다.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밀도 끝도 없는 소리를 자기도 모르게 적어야 하는 고역같은 시험이 아니다. 논술은 출제교수와의 한판 두뇌 싸움이다. 의도를 찾고, 만든 공방이를 찾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명탐정 김전일〉 한 회분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도를 찾아내겠다〉는 자세로 문제를 만나라.

이후 이런 욕망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리오타르의 말을 빌리자면, 정보화 시대에서 ‘지식에 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지배에 관한 물음’으로 귀결된다. 요컨대 오늘날 지식과 정보가 떠안은 진리와 윤리라는 이중의 짐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

〈다〉 대통령 각하, 마침내 드레퓔스가 군사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은 완전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적에게 국경을 열어 독일 황제를 노트르담 성당까지 안내한 반역자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 쉬쉬하며 재판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들은 대경실색한 채 온갖 풍문 이 떠도는 이 무시무시한 드레퓔스의 배신 행위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물론 그들은 국가의 조치를 존중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가혹한 형벌도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 비밀의 방에서 조심조심 물어야만 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것들, 전(全)유럽을 화염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던 그 위험한 것들은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기상 천외한 삼류 소설을 실화로 만들기 위해 국방부는 모든 것을 날조했습니다. 군사 법정에서 낭독된 기소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사실은 금방 드러납니다. 아!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소장인지요! 이런 기소장으로 한 인간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그것이 야말로 불의의 극치입니다. 드레퓔스는 수개 국어를 구사합니다, 유죄. 그의 방에서는 위험한 서류가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죄. 그는 가끔 조상의 나라를 방문합니다, 유죄. 그는 근면하며 모든 것을 알고자 할 정도로 지식욕이 강합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유죄. 그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킵니다, 유죄. 얼마나 터무니 없는 내용이며,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지요! 대통령 각하, 목하 국방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예컨대 언론 캠페인, 흑색선전을 통해 드레퓔스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아무 것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에서야 ‘사건’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셈인데, 왜냐하면 오늘에서야 각자의 입장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는 햇빛이 비치기를 원치 않는 범죄자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햇빛이 비칠 때까지 목숨마저도 바칠 정의의 수호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드레퓔스를 부당하게 법정에 세운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참모차장, 기타 사건 관련자들을 공개적으로 고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알지도 못하며, 단 한번 만난 적도 없으며, 그들에 대해 원한이나 증오를 품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제게 사회악의 표본일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행위는 진실과 정의의 폭발을 앞당기기 위한 한 영혼의 외침일 뿐입니다.

#### 논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800자)

#### 논제 2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요지를 응용하여 〈제시문 다〉의 사회역사적 의미를 현대적 관점에서 논술하시오.(800자)

**TIP**

논제는 그 자리에서 외워야 하고  
시험보고 나와서도 누가 물어보면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위에 보면 논제 1과 논제 2가 있다.  
여러분은 위 두 문제를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써서 분석하겠는가?  
논제 1의 경우만 한 10분은 읽어야 한다.  
이말을 <그냥 하는 소리>로 듣지 말아라.  
10분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10분간 이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풀린다.  
외워라.  
이 두 줄을 읽어내느냐, 읽어내지 못하느냐에  
여러분이 지원한 대학 수시 전형의 80~100% 배점이 달려 있다.  
이제 10분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

# 1 논제 1을 읽어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 ① 논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여러분도 만약 어떤 <답>을 듣고 싶어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낸다면, 그 문제 안에 답안의 조건, 방향 등 모든 것을 담을 수밖에 없다.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수능 언어영역에서도 문제 속의 조건 하나를 놓친다면? 답을 맞출 수 없을 것이다. 초등학생이 문제 중에서 <아닌 것>의 ‘아닌’을 읽지 못하고, <가장 적절한 것>에서 ‘가장’을 읽지 못하면 답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문제>는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다.

객관식에서도 문제가 중요한데, 논술과 같은 주관식 시험이야 그 중요성을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모든 논술 학원과 논술 참고서마다 모두 <논제가 중요>하다며, 논제를 꼼꼼하게 잘 보라고 한다. 그러나 그걸로는 부족하다. 여러분이 이 정도면 충분히 논제를 봤다고 생각할 그 지점부터 다시 읽고 외워야 한다. 논술 문제 해결의 90%는 논제를 얼마나 읽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 ② 논제에서 유의해서 읽어야 할 것들

논제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지시

첫째, <지시>이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라는 것인지, 평가하라는 것인지, 해설하라는 것인지, 논의하라는 것인지, 검토하라는 것인지, 비교하라는 것인지, 분석하라는 것인지에 따라 사실 답안의 스타일과 색깔이 다 달라야 하고, 최대한 지시에 맞는 형태로 답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수험생들은 이처럼 지시대로 글을 쓰기는커녕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조차> 못 찾아내고 있다. 가령

성균관대 2009 수시 논술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을 (문제 1) 의 제시문과 연관지워 설명하시오.

이 문제에서의 ‘지시’는 <현상을 ~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을 대충 읽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현상을 설명하는 글>을 쓸 수 없다. 여러분 중 대부분은 글쓰기에 있어서 완전한 왕초보다. 여러분은 한번이라도 어떤 현상을 ~과 연관지어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이 때 여러분은 최대한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글을 본 경험

### GUIDE

#### 지시 사항을 찾는 방식

왼쪽의 문제를 보면 논제가 요구하는 지시는 크게 두 가지다.

- ①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을 정리하는 것
- ② <제시문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것

논술을 잘 모르는 일반 수험생은 이 문제에서 <설명하시오>만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부분은 그 자체로 지시사항이다. 대학은 표를 넣고,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말을 논제 속에 집어 넣었다. 이는 <아래 표가 보여주는 현상이 있는데, 네가 그걸 한번 찾아서 정리해보라>는 뜻이다. 몇 문제만 풀어보면 이런 감이 오는데, 밑줄을 신중하게 그으면서 내가 모르는 말이 있으면 다 요구 사항이자 지시라고 보면 된다.

이라도 떠올려야 한다. 하다못해 물컵에 찬 물을 담았을 때 물 컵 표면에 물이 맺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 ‘현상’을 설명하는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상 기후 ‘현상’을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글이라든지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범위에서 ‘지시’를 실현시키는 가장 ‘구체적인 사례’를 떠올려야 한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뭘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잡히는 것이다.

## 핵심 단어(개념어)

둘째, <핵심 단어>이다. 만약 여러분이 보고 있는 논술 문제 속에 만약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그 대학 출제진이 미리 만들어놓은 예시 답안 속에도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기들이 <문제점>을 써 놓았으니 학생들에게도 <문제점을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당연한 사실을 빨리 깨닫는 학생이 논술에서 성공한다. 논술을 채점하는 대다수의 채점자들은 직접 문제 출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들은 대체로 해설이나, 채점 가이드를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채점한다. 그 안에 <문제점>이 있고, 그것이 중요한 채점 기준이라면 그 부분을 채점할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점>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떠올리고 여러분의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찾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러분도 논제 속에서 ‘문제점’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모든 사고를 ‘문제점’에 집중해야 하고, 제시문에서 문제점을 찾아야 하고 ‘문제점’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답안에 써야 한다. 이것을 느슨하게 ‘~라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쓰면 안된다. 그것은 왕초보의 자세가 아니다. 실제 수업시간이라면 혼난다. 반드시 <문제점은 ~ 이다>라고 그 문제점의 실체를 ‘이다’라는 서술어 앞에 정확히 밝혀줘야 한다. 가령

**예문 1. 제시문에 나타난 문제점은** 현대 문명이 인간의 감각과 적응 범위를 뛰어넘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인간의 정신과 육체에 이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문 2. 제시문은** 현대 문명이 인간의 감각과 적응 범위를 뛰어넘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다보니 인간은 그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신체와 정신에 부담을 느끼는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두 예문 중 어느 것이 더 ‘문제점’이라는 개념에, 단어에 부합하고 명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가? 그런데 사실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채, 느슨하게 문제를 풀고 글을 쓰는 학생이라면 예문 2처럼 쓰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아마 그런 학생이라면 제시문의 내용에 대해 이것저것 중얼거리다 끝날 것이다. 몇 년 간 이 간단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실감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 떨어지는 학생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철저하게 이를 갈고 지도한다. 문제점을 물었으면 일단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건방 떨지 말고 <문제점은 ~ 이다>라고 답하라. 일단 이렇게 쓴 다음에 어렵더라도 <문제점은 ~ 이다> 사이에 들어갈 ‘문제점’의 실체를 찾고, 문장으로 만들라고 !

논제 속의 단어와 핵심 어구를 있는 그대로 답안에 옮겨쓰는 것은 마음 같으면 이 자리에서 한 몇십페이지를 두고 강조하고 싶다. 아래 문제를 보자.

### GUIDE

논술의 기본 문장은 <A는 B이다>이다.

문제점을 물으면  
<문제점은 ~이다>라고 쓰고  
주장을 물으면  
<주장은 ~ 이다>  
공통점을 물으면  
<공통점은 ~이다>

참 쉽지?  
그런데 이걸 못한다.  
아니 안한다. 어렵기 때문이다. 얼버무리려 하지 말아라. 무엇이든 무엇이든 명사하고, 그 안에 들어갈 말을 힘들더라도 만들고 다담아서 써라.

서울대 2008 정시 논술

구성원 수를 살펴보면 <도표 1>은 31명이고 <도표 2>는 14세(世)부터 18세까지 5명으로, 26명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서울대는 도표 1과 도표 2를 주었는데, 도표 1은 자신을 중심으로 부계와 모계의 조상을 모두 기록하는 방식의 족보이다(빨리 상상하라). 그리고 도표 2는 직계 부계 혈통만을 기록하는 방식의 족보이다. 그러다보니 도표 1에서는 30명의 조상이 등장하는 데 비해 도표 2에서는 딱 4명의 조상만 등장한다. 서울대는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를 서술하라고 했다. 여러분같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실제 수업을 해보면 10명 중에서 9명이 다음처럼 글을 쓴다.

<26명의 차이는 ~>

<도표 1과 도표 2의 차이는~>

<차이는~>

<도표 1은 ~ 이고, 도표 2는 ~이다>

하나 같이 지 멋대로 답을 쓴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애초에 엉뚱한 산을 오르는 꼴이다. 하물며 논제도 제대로 안 보고 논술 문제를 척 보아하니 <가부장제 비판>인 것 같아서 지가 알고 있는 가부장제의 병폐와 문제점 대충 버무리는 애들은 아예 논외로 하자. 이런 답안들이 있어 글쓰기 왕초보인 우리가 짧은 기간에 어떻게 공부해서 수시 합격을 노려볼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대학이 원한 답안의 형태는 오직

<26명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 이다> 또는

<26명의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 이다> 이다.

중요한 것은 <의미하는 바>이다.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데 한 2~3분은 쓴 것 같다. 자 봐라. <차이가 의미하는 바>.... <차이가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차이가 무엇인가를 뜻한다>, <의미가 없는 차이도 있지만, 이 차이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없는 차이는 이래도 저래도 별 차이 없고, 그 차이가 미미한 것들>, <그러나 의미하는 바가 있는 차이란 그 차이가 별 것 아닌 게 아니라 꽤 크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가령, 삶은 계란을 깨먹는 데 있어 뽕족한 쪽부터 깨먹느냐, 둥그런 쪽부터 깨먹느냐는 의미 없는 차이>, <그러나 삶은 계란을 깨먹는 데 있어 소금을 뿌려 먹느냐, 그냥 먹느냐의 차이는 꽤 의미가 있는 차이>, <그렇다면 30명이 기록되는 족보와 딸랑 5명만 기록되는 족보의 차이는 이 문제가 보기에 의미있는 차이>, <그렇다면 26명이 더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0명의 조상이 있는 족보를 볼 때와 딱 5명의 부계 조상만 있는 족보를 볼 때 무엇이

다른가?) ..... 그래서 〈26명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 이다〉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가? 선생님이 하는 것이 웃기나? 다음은 이 문항의 예시 답안이다.

<sup>1)</sup> 〈도표 1〉은 장본인의 4대조 조상을 부계와 모계 모두를 거슬러 기록함으로써 총 31명이 기록되었지만, 〈도표 2〉는 오직 장본인의 부계 혈통 중에서도 아버지만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5명만 기록되었다. <sup>2)</sup> 이러한 차이, 곧 26명이 기록되고 또 기록되지 않고의 차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한 인간의 혈통의 형성에 있어 여성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sup>3)</sup> 사라진 26명 중, 15명은 장본인의 어머니인 동래 정씨와 그 조상들, 곧 모계 조상들이다. <sup>4)</sup> 나머지 9명 또한 부계 조상들 중, 모계 조상들이다. <sup>5)</sup> 둘째, 한 인간의 혈통의 형성에 있어 부계 혈통만 중시된다는 것이다. <sup>6)</sup> 26명이 사라지고 남은 5명은 오직 아버지의 아버지들 뿐이었다. <sup>7)</sup> 결국 26명의 차이가 갖는 의미는 인간이 자신의 혈통 형성과정, 존재의 혈통적 측면의 형성 과정을 오직 부계 혈통 중심으로만 편협하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잘 들어라. 논술을 잘 쓰고 싶다면, 논제 속에 나온 단어나 개념을 존중하라. 왕초보라면 일단 무조건 논제에 나온 핵심 단어를 답안에 써라. 돌려 말하거나, 무시하거나 빼먹지 말아라. 철저하라.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라.

## 답안 설계

셋째, 지시와 개념어, 핵심단어들을 챙긴 후에는

몇 개의 지시사항인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각 지시마다 어떤 분량으로 답안에 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부터 쉬운 예를 하나 들어서 짚 갈 거니까 잘 따라오도록.

서강대 2009 수시 모의논술

① (가)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② (나)와 ③ (다)의 논지를 대조적으로 정리한 다음, ④ (라)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고려하여, ⑤ 현대 문명 상황에서 ⑥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1,000~1,200자)

자, 시작한다. 지시사항은

- ① (가) 현상을 간단히 설명하는 것
- ② 이와 관련한 (나)의 논지를 정리하는 것
- ③ 이와 관련한 (다)의 논지를 정리하는 것(단, (나)와 대조적으로)
- ④ (라)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무엇인지 쓰고 고려하는 것
- ⑤ 현대 문명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리하는 것
- ⑥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쓰는 것

이 된다. 이제 분량을 나눠야 하는데, 가만히 보면 ① ~ ③ 까지가 한 덩어리, 나머지가 한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 글자는 최대 1,200자를 써야 한다. 그렇다면 각각에 600자씩 할애하고 번호 하나당 200자를 넘기면 안된다.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답을 써야 할 원고지 끝에 대강의 체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하고 각 요구 사항마다 분량까지 어느 정도 미리 계산하지 않고 그저 되는데로 쓰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 GUIDE

이 답안 설계를  
몇 번 연습해보면서  
빨리 손에 익혀야 한다.

논술 문제를 하나 푼다고 하자. 나름대로 논제를 보고 답안의 순서와 분량을 미리 그려본다. 그리고 나서, 예시답안을 확인해보면서 내가 설계한 답안의 순서, 분량, 흐름이 큰 틀에서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수시 레포트를 보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그러한 학습자료는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 GUIDE

논제 속의 단어만 그대로 사용해도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할까 기본 감은 온다. 앞서 논제 속의 단어를 그대로 답안에 써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좌측의 ①도 답안에 쓰면 〈가의 현상은 ~ 이런이런 현상이다.〉 정도의 주제문과 그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②도 〈이와 관련한 (나)의 논지는 ~ 이다〉로 쓰면 된다. ④ 역시 〈(라)에서 제기한 문제점은 ~ 이다〉로 쓰면 된다. 다 이런 식이다. 이렇게 연습하라. 밀도 끝도 없이 최선을 다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TIP**

논제를 쪼개고 나누고 외우는 사전 작업 없이는  
절대로 채점자가 원하는 답을 쓸 수 없다.

제시문을 읽어보기도 전에  
논제를 최대한 나누고, 쪼개고 그 순서를 정하고  
답안지에 쓸 구체적인 분량을 정하고

내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과 단어에 부응해서 그것만 써야 하는지,  
논제를 거의 외울 정도로 읽고 또 읽지 않고 제시문을 보거나 답을 쓰려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논술 실력이 늘 수 없다.  
시간 낭비다.

TIP

본인의 경험에서 볼 때, 논술 대비와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짜증날 정도로  
논제를 지키면서 쓰기

서울대 정시 합격

본인의 경험에서 볼 때, 논술 대비와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논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글쓰기의  
기초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읽고, 원고지의 분량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 그리고 제시문을 읽어야 자신  
이 써야할 방향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연세대 수시 합격

## 2 논제 1을 읽어보자.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800자)

지시

### ①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우선 천천히 읽어보자. 첫줄에 보니까,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라는 말이 나온다. 여러분은 〈제시문 가〉가 어떤 내용인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르지? 모르면 요구 사항이고 지시다. 만약 지시가 아니라면 대학은 〈제시문 가는 ~을 담고 있다. ~을 보여준다〉라고 미리 말을 한다. 하나 찾았다. 바로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시켜나가기 위해' 필수적 과정으로 〈제시문 가〉를 정리, 또는 이해, 활용하라는 것이다. 최소한 답안지에는 〈제시문 (가)는 ~을 보여준다〉 정도는 넣을 생각을 해야 한다.

### ② 자료 1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

자료 1이 뭔지, 자료 2가 뭔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전 구절이 여기서 다 지시사항들이다. 왜 여기서 자료 2는 빼먹었을까? 논제에서 '자료 1', '자료 2'는 '과'로 묶여 있다. 이는 결국 각각 해결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먼저 (자료 1)에 담긴 '현상'이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었던 수험생들은 이렇게 자료 1의 현상과 의미를 다 쓸까? 전혀 그렇지 않다. 다만 자료 1에 대해 이것저것 적을 뿐, 이 '현상'이 뭔데 그 의미를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쓰지는 않는다.

### ③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

앞에서 자료 1의 현상과 의미를 설명한 것과 동일한 분량, 동일한 방식으로 - 이게 중요하다. 방식과 구조가 동일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정리해야 한다. 이 두 문단이 체계와 짝이 맞아야 답안이 체계적으로 보인다.

#### ④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핵심 키워드는 '문제점'이지만, 사실 그 앞에 있는 '이 경우'도 중요하다. 어떤 경우인가? 답안을 쓸 때, 이 '어떤 경우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은 것이다.

#### ⑤ 그 대응방안을 논술

이번의 키워드는 '대응방안'이다. 이 대응방안은 당연히 앞의 문제점과 직결되어야 하고, 앞에서 사용한 제시문 1, 도표 1, 도표 2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방향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가끔 대응방안을 기발한 착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발하고 창의적인 것은 좋지만, 그보다 선행하는 논술의 미덕은 <주제>에 얼마나 집중하느냐이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명시한다.

### 핵심 단어

#### ①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 바탕

'바탕'이라는 말의 뜻은 모든 논의를 (가)와 관련시켜 하라는 뜻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다.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든 논의가 오답이 된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다. 그래서 (가)에 신경을 쓰지 않는 순서로 떨어진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또 그런가? 도표 1, 2 보다 보면 은근슬쩍 (가)는 잊어 버린다. 그리고 (가)의 논지를 정확히 파악한 수험생도 드물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은 '바탕으로' 하지 않은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솔직히 선생님은 이런 답안이 90%가 넘는다고 본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채점하기 편하니 좋다. 이거 무서운 말이다. '바탕'으로... ! 비슷한 말로는 '논의의 근거로 삼아, 토대로 하여, 근거로 하여, 관련시켜' 등이 있다. 하나 같이 정답의 조건이자, 채점의 살벌한 기준이다.

#### ② ③ 현상과 의미

도표 1과 2는 현실에 대한 객관화 자료이므로 모두 특정한 '현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현상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다양하다. 똑같은 식민지 지배 기간도 보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고, 현실적 목적에 따라 각각 도출해내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민 지배기간의 의미가 근대화과 경제 발전의 태동 기간이라는 독특한 의미로 도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도표 1, 2도 뭔가 '현상'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내면 안되고, 거기서 의미를 끌어내야 한다. 이 때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제시문 가>이다.

여러분은 제발, '그냥' 쓰지 말고, '현상'은 현상으로, '의미'는 의미로 써라. 그 첫 단계로 답안지에 <현상은 ~ 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 이다>로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현상에 주목하고 의미에 주목할 수 있다.

#### ④ 문제점

핵심 키워드는 '문제점'이다. 알았지? '문제점'이야.

#### ⑤ 대응방안

이번의 키워드는 '대응방안'이다. 길게 말할 것 없이 무조건 대응방안이라고 답안에 쓴다.

#### 답안 설계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 (800자)

자, 논제를 보면서 시작한다. 답안의 순서와 분량은 다음과 같이 설계할 수 있다.

① 〈가〉의 의미 / 약 100자

② 〈자료 1〉의 현상과 의미 / 약 150자

③ 〈자료 2〉의 현상과 의미 / 약 150자

400자

문맥상 여기서 문제는 반으로 갈라진다

400자

④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 약 200자

⑤ 그 대응방안 / 약 200자

#### GUIDE

눈치가 있어야 붙는다.

여기서 보면 '문제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제시문 〈가〉에는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도 절반은 언급되어 있다. 그런데, 논제는 〈문제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야? 좋은 이야기는 필요 없고, 문제점을 쓰라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GUIDE

논술에서는 별도의

개요짜기는 필요 없다.

좌측에 보면, 대강의 개요와 분량 구분이 되어 있다. 몇 번 해보면 감이 올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량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기 기분따라, 자기 가 잘 쓸 수 있는 부분을 더 쓰고 뭐 이러면 낭패다. 좌측의 답안설계에서 글자수가 좀 조절될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 좌측의 순서와 방향은 절대 바뀔 수 없다. 이걸 뒤집거나, 무엇인가를 빼먹거나 바꾼다면 그건 절대 안된다.

논제를 쫓게 됐다. 어떻게, 그냥 쓸 때보다는 적어도 뭘 써야 할까에 대해서는 감이 오는가?  
물론 제시문을 읽지 않으면 아직 답을 쓰기는 어려운 게 당연하다.  
그래도 잘 들어라

틀릴 때 틀리더라도, 뭘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애매하게 어리버리 빨갓하다 틀리는 것과  
현상과 의미와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실제로 주목하고  
자기가 판단할 때 그 개념에 충실한 답을 쓰려고 노력하다 틀리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이제까지 논제 1을 최대한 분석했다. 10분 더 걸렸겠지? 선생님도 이 짓을 다하면서 문제를 푼다. 그러니 이 문제를 쓰으 ~ 보고 지나가는 학생들이 실제 이 문제가 만들어진 뿌리가 되는 <예시답안>에 근접한 답안을 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 (800자)

[illegible]



## 4 논제 1에 대한 선배 답안을 검토하자.

### 졸업 선배의 답안 보기

아래에 소개하는 글은 과거 이 문제를 공부한 선배가 이 문제를 받아서 쓴 답안이다. 논술을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었고, 공부는 잘했다. 이 선배가 어떻게 답안을 썼는가를 한번 보자.

논술 경험이 없는 학생인지라, 첫 답안에서 정해진 분량인 800자를 채우지 못하고 위와 같이 약 500자 정도의 답안을 썼다. 어떨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잘 쓴 글 같은가? 아니면 엉망인 것 같은가? 여러분보다는 나은 것 같은가? 아니면 여러분보다 못한 것 같은가? 아니면 여러분도 이 답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 답안은 채점 현장이라면 바로 아웃될 답안이다. 본인은 열심히 썼지만, 이런 답안을 열심히 읽고, 채점해줄 사람은 없다. 어차피 떨어질 수준이 분명한데 채점자가 그 글을 꼼꼼하게 읽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나 이 학생은 분명 학력이 우수한 학생이었고, 지금 이 답안도 보면 그렇게 엉망은 아니다. 나름대로는 두 자료의 의미를 쓰려고 했고, 문제점도 쓰려고 했다. 다만 경험 부족으로 인해 응답이 정확하지 못했고, 그러다보니 풀이 과정에서도 제시문 오독이 있었고, 그 결과 일정 수준 이하의 답을 쓰게 된 것이다. 위 학생은 몇 주만에 답안의 체계가 많이 잡혔고, 글이 좋아졌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답안이 무엇이, 왜 문제인가를 따져보기로 하자. 잘 들어라. 여러분도 남의 말 할 때가 아니다.

### 학생예시답안 - 논제 1에 대한

|   |   |   |   |   |   |   |   |   |   |   |   |   |   |   |   |   |   |   |    |     |     |
|---|---|---|---|---|---|---|---|---|---|---|---|---|---|---|---|---|---|---|----|-----|-----|
| ❶ | < | 제 | 시 | 문 | 1 | > | 과 | 같 | 이 | 인 | 터 | 넷 | 가 | 입 | 자 | 수 | 의 | 급 |    |     |     |
| 속 | 한 | 증 | 가 | 는 | 일 | 부 | 에 | 만 | 한 | 정 | 되 | 었 | 던 | 정 | 보 | 를 | 더 | 많 | 50 |     |     |
| 은 | 대 | 중 | 들 | 이 | 얼 | 을 | 수 | 있 | 게 | 하 | 였 | 다 | . | ❷ | 그 | 리 | 고 | 정 |    |     |     |
| 보 | 의 | 다 | 양 | 화 | 도 | 이 | 루 | 어 | 졌 | 다 | . | ❸ | 인 | 터 | 넷 | 가 | 입 | 자 | 수  | 의   | 100 |
| 증 | 가 | 는 | 정 | 보 | 의 | 지 | 역 | 적 | 인 | 한 | 계 | 와 | 편 | 재 | 성 | 을 | 해 | 결 | 할  |     |     |
| 수 | 있 | 다 | 는 | 점 | 에 | 서 | 의 | 미 | 가 | 있 | 다 | . | ❹ | < | 자 | 료 | 2 | > | 는  | 150 |     |
| 상 | 위 | 소 | 득 | 총 | 일 | 수 | 록 | 하 | 위 | 총 | 보 | 다 | 인 | 터 | 넷 | 이 | 용 | 률 | 이  |     |     |
| 상 | 대 | 적 | 으 | 로 | 높 | 다 | 는 | 것 | 을 | 보 | 여 | 준 | 다 | . | ❺ | 인 | 터 | 넷 | 상  | 에   | 200 |
| 서 | 도 | 상 | 위 | 층 | 의 | 정 | 보 | 독 | 점 | 이 | 이 | 루 | 어 | 지 | 고 | 있 | 다 | . | ❻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 | 러 | 한 |   | 이 | 용 | 률 |   | 격 | 차 | 는 |   | 계 | 층 | 간 | 의 |   | 더 |   | 큰 |   | 격 | 차 | 를 |   | 250 |
| 유 | 발 | 한 | 다 | . | ㉗ | 그 | 런 | 데 |   | 가 | 입 | 자 |   | 수 | 의 |   | 급 | 속 | 한 |   | 증 | 가 | 는 |   |     |
| 정 | 보 | 의 |   | 왜 | 곡 | 을 |   | 가 | 져 | 오 | 기 | 도 |   | 한 | 다 | . | ㉘ | 정 | 보 | 사 | 회 | 의 |   | 대 | 300 |
| 중 | 성 | 으 | 로 |   | 인 | 해 |   | 굴 | 절 | 된 |   | 진 | 실 | 이 |   | 널 | 리 |   | 오 | 용 | 되 | 기 | 도 |   |     |
| 한 | 다 | . | ㉙ | 그 | 리 | 고 |   | 상 | 위 | 층 | 의 |   | 인 | 터 | 넷 |   | 이 | 용 | 률 | 이 |   | 상 | 대 | 적 | 350 |
| 으 | 로 |   | 다 | 른 |   | 계 | 층 | 보 | 다 |   | 높 | 기 |   | 때 | 문 | 에 |   | 이 | 들 | 의 |   | 정 | 보 |   |     |
| 장 | 악 | 이 |   | 발 | 생 | 한 | 다 | . | ㉚ | 이 | 러 | 한 |   | 격 | 차 | 는 |   | 계 | 층 |   | 구 | 조 | 를 |   | 400 |
| 고 | 취 | 시 | 킬 |   | 뿐 |   | 아 | 니 | 라 |   | 대 | 중 | 지 | 배 | 를 |   | 가 | 능 | 하 | 게 |   | 하 | 여 |   |     |
| 통 | 치 | 수 | 단 | 으 | 로 |   | 변 | 화 | 할 |   | 수 | 도 |   | 있 | 다 | . |   |   |   |   |   |   |   |   | 4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UIDE

여러분은 위의 답안이  
 한번에 짝 읽히는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겠는가?

논술 답안은 물론 문제에 부응해야겠지만, 그래도 글은 글이니만큼 사람이 읽  
 으면 이해가 되고, 대체 무슨 소리인가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은 이 글  
 이 한번에 명확하게 읽히고 이해가 되는가?

## 논술 초보들의 문제점 - 논제와 상관없이 답하기

논제를 보면 적어도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라”는 부분이 있다. 이 학생도 문제를 전혀 안보고 쓰는 것은 아니니만큼 그래도 자료 1과 2를 보기는 한 것 같고, 그에 대해 답을 쓰려고는 했다. 보자. 논제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답안이 논제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① 〈제시문 1〉과 같이 인터넷 가입자 수의 급속한 증가는 일부에만 한정되었던 정보를 더 많은 대중들이 얻을 수 있게 하였다. ② 그리고 정보의 다양화도 이루어졌다. ③ 인터넷 가입자 수의 증가는 정보의 지역적인 한계와 편재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④ 〈자료 2〉는 상위 소득층일수록 하위층보다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⑤ 인터넷 상에서도 상위층의 정보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⑥ 이러한 이용률 격차는 계층 간에 더 큰 격차를 유발한다.

냉정하게 따지면 ①은 그래도 맞은 된다. 다만, 〈제시문 1〉이 아니라 〈자료 1〉을 말하려고 한 것 같다. ②는 일단 문장이 성립이 안되고, 주어진 자료만으로 〈정보의 다양화〉는 추론할 수 없다. ③도 솔직히 말해 〈정보의 지역적인 한계와 편재성〉이라는 구절이 그 뜻이 모호하고, 본문의 도표, 또는 제시문 (가)와 무관하다. 이제 슬슬 〈자료 1〉에 대해서는 할 말이 떨어지고, 더 쥐어짤 말도 없고, 그분도 이제 〈자료 2〉로 가자고 하셔서 〈자료 2〉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다.

④는 학생들의 90% 이상이 보이는 실수인데, 〈도표 2〉가 담고 있는 중요 정보를 찾지 못하는 것이다. 나중에 제시문 분석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도표 2〉의 문제는 하위층보다 상위층이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계층은 정보화 사회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⑤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진술로 우리가 고작 초고속 인터넷 좀 깔고 산다고 해서 소위 ‘정보를 독점’한다고 할 수 없다. ⑥에 오면 평소 알고 있던 ‘정보 격차’, ‘정보 불평등’이 생각났는지, 계층간의 격차를 언급하지만, 이번 문제의 출제자는 저런 이야기가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각 문장별로 이 답안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것은 세부 문장들에 대한 부수적인 지적에 불과하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 답안이 〈3+4〉라는 문제에서 3과 4를 더하지 않은 답안, 다시 말해 논제가 요구한 사항을 아예 지키지 않은 답안이라는 점이다. 각 도표의 현상과 의미를 물었으면 일단 〈현상〉과 〈의미〉라는 핵심 개념어로 답해야 한다. 백번 양보해도 이 도표에서 ‘현상’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어떤 사실을 밝혔어야 하고, 거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미’라고 이름 붙일만한 어떤 일반화된 사실이나 내포하는 뜻을 밝혔어야 했다. 답은 틀릴 수 있다. 3과 4를 더하려다가 실수로 8을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더하지 않아서는 곤란하다. 자, 더 이어서 보자.

### GUIDE

이 답안에는 무엇보다 채점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정보가 없다.

논제가 〈제시문 1〉을 바탕으로 한 자료 1과 자료 2의 현상과 의미를 물었다면, 이 때 채점자는 오직 학생이 답안에 각 자료의 현상과 의미를 제대로 정리했는가를 우선 확인하고자 한다.

#### 1. 현상도 없고 의미도 없다.

그런데 좌측의 답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현상〉이라는 단어도 없고 〈의미〉라는 단어도 없다. 고작 ④번 문장의 끝에 〈의미〉라는 단어가 살짝 나왔을 뿐이다. 자, 잘 들어라. 이 답안은 냉정하게 따지면 〈현상〉을 물었는데, 〈현상〉도 밝히지 않고 〈의미〉를 물었는데, 〈의미〉가 무어인지 쓰지도 않은 답안이다. 본인은 그런 내용을 답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이 답안에는 그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 2. 제시문 1을 씬다.

그리고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제시문 1〉을 바탕으로 글을 쓰지 않은 것이다. 〈제시문 1〉이 없다면 자료 1, 2를 보고 무엇을 쓰든 상관없지만, 〈제시문 1〉을 바탕으로 하라고 대학이 말하는 순간, 제시문 1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모든 답안은 오답이 된다. 그런데 제시문 1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풀어도 될까 말까인데, 논제에 나온 〈제시문 1을 바탕으로〉라는 요구에 주목조차 못하니 어떻게 좋은 답안을 쓸 수 있었는가?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800자)

㉑ 그런데 가입자 수의 급속한 증가는 불필요한 정보를 배출해 내기 시작하였다. ㉒ 정보사회의 대중성으로 인해 굴절된 진실이 널리 오용되기도 한다. ㉓ 그리고 상위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의 정보 장악이 발생한다. ㉔ 이러한 격차는 계층구조를 고취시킬뿐만 아니라 대중자배를 가능하게 하여 통치수단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㉕ 썸에서 사실 문제점을 쓴다고 쓴 것 같기는 하다.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쓰면 쓰는 사람은 ‘문제점’을 쓴다고 쓴 것인지 몰라도, 보는 우리는 ‘문제점’인가를 한번에 알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수험생은 모두 왕자님 아니면 공주님이다. 자기가 대충 아무 말이나 뱉어 놓으면, 읽는 사람이 알아서 읽어줘야 하는 듯한 자세로 글을 쓴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㉖은 사실 일반인이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고, ㉗에서 ‘아까 한 말 또하기 실패’가 발휘되었다. ㉘에서 드디어 이 논술 초보 학생의 ‘빙의’가 끝났다. 무속에서만 ‘빙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논술에도 ‘빙의’가 있다. 자기도 파악 못하고 뭘 써야 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쓰고 있는지도 도저히 모르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답안은 채워져 있는 초자연적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왜 얽힌 답안을 이렇게 씹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확인한 답안은 대부분 논술 초보들이 보여주는 일반적인 수준의 답안이다. 그리고 이 답안의 문제를 정리하면 <논제의 요구와 긴밀하게 대응하는 답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학생은 논제의 요구대로 쓰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논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다. 더 들어가면 <그래야 한다는 것도 애초에 몰랐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논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 3이 몇 달만에 논술 고사에서 갑자기 독해의 신이 되고, 사고력이 깊어져서 논신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 다만 남보다 대학과 출제자가 애초에 의도한 방향과 구조대로 최대한 답을 쓰고, 같은 시간 안에 자신이 써야 할 내용에 더 집중할 때, 그나마 합격권에 들 수 있는 답안, 실수가 없는 답안, 적어도 시키는 것은 하려고 노력한 답안을 쓸 수 있다. 그리고 논술을 공부하는 초반에 이런 버릇을 제대로 들여야 연습 효과도 좋고, 또 단기간에 그나마 합격권 비슷한 답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논제 1을 2주에 걸쳐 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 한 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한 반년쯤은 해야 알아듣는다. 답답할 정도로 학생들은 ‘자의적’이다.

**TIP**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으면  
반드시 <제시문>을 읽지 말고,  
<논제>부터 읽어야 한다.

제시문을 그냥 읽어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만 심란할 뿐이다.

심지어 제시문을 보지 않고도 답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논제만 보고 답안의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  
대학은 논제 속 단어 하나, 숨표 하나 그냥 내지 않는다.  
씹고 또 곱씹어서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 기대한 답까지  
예상하고 그려보라.

이것이 우리가 단기간에 그나마, 그나마. 논술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자, 이제 원고지 위에서 실제로 문단을 구분하고, 답안의 뼈대를 설계해 보자. 다음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인데, 이 문제를 쪼갬을 때 우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지시’와 ‘순서’였다.

- ❶ (가)의 의미 / 약 100자
- ❷ <자료 1>의 현상과 의미 / 약 150자
- ❸ <자료 2>의 현상과 의미 / 약 150자
- ❹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 / 약 200자
- ❺ 그 대응방안 / 약 200자

[illegible]

**GUIDE**  
**답안 우측에  
 체크하라**  
 문단을 나눈 후,  
 답안에 가상의 분  
 량을 미리 체크하  
 고 큰 틀에서 그  
 분량을 지켜야 한  
 다.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제 소원은 \_\_\_\_\_입니다)로 답하고, 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답하는 사람이 미리 확정해서 선행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글쓰기 뿐 아니라 대화의 기본이다. 이 경우에 <저는요~ 있잖아요~>하면 이미 대화가 안된다. 위에 정리한 각 단단의 첫문장들을 보면 대체로 이런 식의 문장 구성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은 그것이 현상이든, 의미이든, 문제점이든, 대응방안이든, 매우 힘들겠지만 ! 정리된 내용으로 서두에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버릇을 들이는 것만으로 이미 여러분은 논술 상위권이다.

사실, 위와 같이 원고지를 그리고 그 위에 가상의 답안을 설계하고 첫 문장의 기본 뼈대를 짜면서 드는 생각은 ‘참 별 짓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논술 답안을 구상하라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 경직되고 기계적 답안을 구상하는 방향을 강요한다는 반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너무 제멋대로 글을 쓴다. 그리고 급기야 잘쓰고 못쓰고는 둘째 치고 쓰라고 하는 것도 쓰지 않는다. 자기가 무엇을 써야 하는지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학생들이 3시간 동안 머리를 쥐어짜도 빨갛만 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정도 논술을 쓰게 되고, 훈련이 되면 반드시 저렇게 기계적으로, 경직되게 답안을 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번 답안은 반드시 <제시문 1을 바탕으로 한 자료 두 개의 현상과 의미와 그것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이제 아래와 같이 설계한 각 문단의 주제문들을 놓고, 답안 설계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 ① (가)는 ~을 말해준다.
- ②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자료 1>의 현상은 ~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다.
- ③ <자료 2>의 현상은 ~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이다.
- ④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다.
- 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은 ~이다.

#### 답안 설계시 유의할 점 1 - 분량을 엄격히 지켜라.

사실 이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원고지 쓰기에서는 문단을 바꿀 때만 왼쪽의 첫 칸을 비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체의 예외가 없다. 오른쪽 끝 줄에서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었든 말든 상관없다. 윗줄의 맨 마지막 칸을 ‘다’로 끝내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 그냥 그 줄에서 ‘다’와 같은 칸 안의 구석에 알아보게 찍으면 된다. 문단이 새로 시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지의 첫칸을 비워서는 안된다.

채점자는 사실 문단이 구성된 것만 봐도 대강 한 학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다. 대체로 못쓰는 학생들은 문단이 너무 많이 나뉘어 있거나(산만하게), 아니면 전체 답안이 한 문단 통으로 채워져 있다(무식하게). 잘 쓴 답안지는 대나무의 마디처럼 적절하게 문단이 구분되어 있다. 당연히 논술 고사에서 문단의 구분 기준은 논제의 요구 사항이 달라지는 지점들이다. 이번 답안을 보면 설계 과정에서 총 5개의 문단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봐도 저렇게밖에 나눌 수 없겠다 싶은 정도로 문단마다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것이다.

①, ②, ③을 한문단으로 묶고, ④, ⑤를 한문단으로 묶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 400자가 한 문단이 되는데 논술 초보에게는 좀 많다. 나눌수록 우리는 각 문단에 집중할 수 있다.

**TIP**

논제를 쪼갠 뒤,  
요구사항과 그 분량을 확인한 후,  
원고지 오른쪽에 체크하고,  
각 문단에서 해결해야 할 목적을 메모하라.

사소한 원칙이지만,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답안지 오른쪽에 희미하게라도 체크하라.  
**가령 (가)의 의미와 /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문제점과 / 극복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600자로 써야 한다면?

200자씩 세 부분으로 나누고 분량을 체크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글을 쓸 때는 한줄씩 넘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대강 그 범위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문단 오른쪽에 연필로  
의미 / 문제점 / 극복방안  
이렇게 세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메모하라.

이 길을 잃으면 낭패다.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원칙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답안 설계시 유의할 점 2 - 논제 속에 나온 개념어만큼은 그대로 사용하라.**

하나의 문제에는 대체로 핵심 개념어가 적으면 두 개, 많으면 서너개 있다. 수업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바로 논제 속 개념어를 만나면 그 구체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가령 〈현상〉을 〈설명〉하라는 논술 문제에 흔히 나올 수 있는 개념어들이 있다고 하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것을 쉽게 생각한다. 그리고 막상 답안에 〈현상〉을 〈설명〉하는 행태로 글을 쓰지는 못한다. 〈시〉를 〈해설〉하라고 하는데, 막상 글을 쓰면 시를 소개하거나, 시를 감상하거나, 시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시를 평가하거나 개판이다. 〈현상〉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만나면 19년 살아오면서 봤던 ‘현상’을 ‘설명’하는 예문을 떠올려야 한다. 쉽게 말해 개념어에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 그 스타일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단계로 답안에는 반드시 논제 속에 포함된 개념어를 쓰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버릇을 확실히 몸에 배도록 노력한 선배들이 단기간에 답안이 좋아진다. 남보다 더 문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근본적인 실력이 큰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데도 헛소리로 일관하고 제 시문에서도 엉뚱한 것만 밀줄치고 있는 학생들이 대단히 많다.

**답안 설계시 유의할 점 3 - A는 B이다. 형태의 문장으로 답하라.**

〈우리 학원의 목적은 성적 향상이니다〉와 〈우리 학원은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상대방이 “학원의 목적이 뭐니까?”하고 목적을 물었다면 당연히 ‘목적’이 주어가 되어 답해야 한다. 상대방이 알고 싶은 것은 ‘목적’이다. 그렇다면 문두에 ‘목적’을 넣고, 다시 말해 주격조사 은/는 앞에 ‘목적’이 들어오는 것이 직설적이고 간명하다.

이 예문은 간단한 사례여서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복잡한 문제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논술 초보는 무조건 소원을 물으면 소원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이 자료의 문제점을 찾으려면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도표에 나타난 현상의 의미를 쓰라고 하면 현상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이라고 답하라. 이렇게 답하는 것이 물론 여러분에게는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색하다면 그건 맞는 거다.

#### 답안 설계시 유의할 점 4 - 두괄식의 원칙을 고수하라.

문단의 주제문은 원래 문단의 앞에도 있을 수 있고, 뒤에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괄식이라는 말도 있고 미괄식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논술 고사에서는 두괄식이 좋다. 이유는 간단하다. 채점자는 여러분에게 애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글을 참고 기다려 다 읽어주고, 문단의 끝에 가서 주제문을 확인해주지 않는다. 또 채점자는 각 문단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답이 있다. 가령 ‘제시문 나의 의미’를 써야 할 부분에서 ‘이놈이 제시문 나의 의미를 찾았나 보자’ 하는 사람에게는 첫줄부터 ‘제시문 나의 의미는 ~ 이다’로 밝혀줘야 말이 된다.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은 왕자와 공주가 아니고, 채점자는 여러부 부모님이 아니다.

사실 두괄식으로 써야 하는 진짜 이유는 이렇게 연습해야 답안을 쓰기 전에 그 문단의 내용을 확정하고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두괄식은 그 문단에 써야 할 내용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사람만 쓸 수 있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대충 글을 써가면서 내용을 정리할 생각은 해서는 안된다. 설계를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고 두괄식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풀이를 열심히 해서 적어도 내가 무엇을 써야하는가는 알고 답안을 쓰자는 취지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단 쓰기 시작하고, 쓰다가 고민하고, 쓰면서 내용을 찾고, 그러다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러다가 교과서에서 주워들은 이야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 문단 바꿔야지 하면서 바꾸고, 그러다가 쓸만큼 쓰면 펜 놓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시 쓰면 다 떨어지는 것이다.

#### 답안 설계시 유의할 점 5 - 부연 부분은 주제문 쓴 다음에 생각하라.

앞에 원고지 설계 부분을 보면 주제문만 있고 부연 부분은 텅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전체 답안지에 다 주목하고 다 공을 들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일단 주제문에 각별히 공을 들여서 글을 써야 한다. 선택과 집중인 셈이다. 부연은 사실, 주제문에서 뱉어놓은 말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않아도 일단 성공이다. 그러면 산만한 문단이 되지 않고 주제문에 쓴 단 하나의 내용에만 집중한 문단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연에서 상세화하고 논증하는 예시문항 2번쯤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 6 이런 답안 스타일이 필요한 이유는?

**대학은 잘 쓴 글, 명문장, 칼럼과 에세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논제는 참고사항 쯤으로 알고, 나름대로 답을 잘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이 많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생각이다. 첫째, 그렇게 되면 대학 채점에서 ‘자의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수험생 나름대로 작문을 쓰듯 글을 재구성하면 채점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답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한마디로 채점 과정의 객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둘째, 대학은 ‘작문’, 소위 ‘글솜씨’를 평가하지 않는다. 논술은 대학이 제시하는 자료의 이해 능력, 분석, 응용, 조합능력, 최소한의 논리적인 사고 전개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아듣는 이해와 지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이지, ‘글솜씨’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암채처럼 할 말만 하고 빠지는 답안이 잘 쓴 답안이다.**

위의 원고지 안에 써 놓은 문장, 다시 말해 답안의 뼈대들을 보면 무미건조하면서도 냉정하게 할 말만 톡톡 하고 다른 말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답변이 대단히 어색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색하다면? 그건 맞는 것일 확률이 높다. 학생들은 시작할 때도 땀을 흘리고 서론이랍시고 중얼중얼 대단하지도 특별하지도 않고 하나마나한 말을 늘어놓기도 한다. 또 중간 중간에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고, 어쭙쭙한 한자어나 용어(뜬금없이 ‘이는 불교의 연기설과 연관된다’고 하는 따위의)를 쓰기도 한다. 또 마지막에는 시키지도 않는 내용, 곧 해결방안이나, 앞으로 힘으로 모아 잘 해보자 따위의 말을 던지기도 한다. 누가 듣고 싶어할 것 같은가? 이 문제는 오직 <제시문 1을 바탕으로 한 자료 두 개의 현상과 의미와 그것에서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만 듣고 싶어한다. 대학 논술은 대단히 사무적이다. 여러분 혼자 사교적으로 폰수 떨지 말아라.

## 7 논제 1을 기초로 제시문을 검토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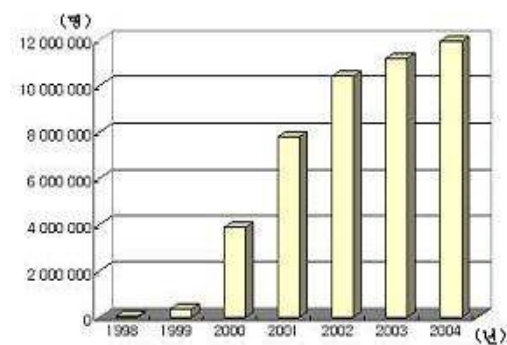
### ① 제시문을 볼 때도 기준은 논제다.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제 위의 논제가 지겨울 것이다. 아닌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참 무딘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제 지겹다. 저 말을 매주 했더니 꿈에 나올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고 실제 현상에서 글을 쓰게 해도 답안에 ‘현상’, ‘의미’ 이런 말을 안쓰는 학생들은 자주 있다. 그러면 안된다. 지금 초보잖아? 시키는 대로 따라와라.

####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

현상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는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이다. 말 그대로 표에 나타난 어떤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표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나 보자. 그런데 여기서 왜 〈현상〉만 따지고 〈의미〉는 따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현상’은 제시문 (가)와 상관 없이 드러나는 것이지만, ‘의미’는 제시문 (가)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 되나?



〈표 1〉 인터넷 가입자 수 증가추이

이 표에 나타난 현상은 무엇일까? 어렵지 않다. 〈인터넷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단, 그 양상을 보면, 1999년에서 2000년에 접어들면서 증가폭이 매우 크다.

그리고 2001년, 2002년까지는 증가세가 비교적 크다가, 2003년부터는 조금씩 그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왜일까?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표에 나타난 현상을 정리하면

〈표 1〉에 나타난 현상은 2000년 이후 인터넷 가입자 수가 급증하다가 최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이다.

#### GU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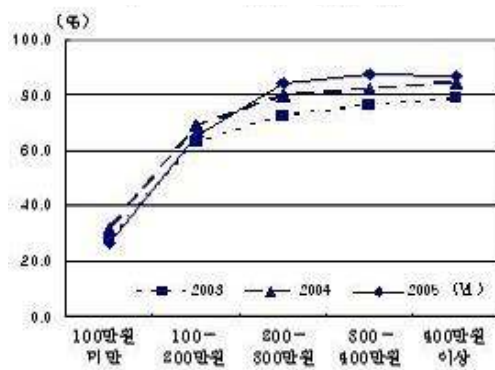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지금 왼쪽을 보면 〈의미〉보다는 〈현상〉을 주로 살펴보고 있다. 이는 〈의미〉는 표에서만 찾을 수 없고, 논제가 시킨대로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할 때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료 1을 보면, 인터넷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의 의미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재미있겠다〉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사람들의 삶이 더 즐거워진다〉라고 하면 틀릴까? 잘못된 분석일까? 아니다.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각자 나름대로 표 1에서 의미를 끌어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를 끌어내든 자유다. 그러나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라고 논제가 조건을 거는 순간, 답은 제한된다. 알겠나?

가 된다. 이것을 나중에 답안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는 또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아무리 눈을 뒤집어가고 봐도 이 표에서 다른 현상을 더 찾아내기는 어렵다. 답안을 완성하고 제출하는 순간까지 의심을 거둘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표에 나타나 현상은 인터넷 가입자의 수가 급증하고, 단, 그 수가 무한대로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천 이백만 명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완만한 성장세로 바뀐 현상 정도가 되겠다.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다.



〈표 2〉 소득별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이

이 표에 나타난 현상은 또 무엇일까? 이 표를 보면, 소득별로 인터넷 이용률 증가 추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학생들은 습관적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한다>고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를 보면, 실제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2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은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300만원 이상 소득자에서는 오히려 증가율이 미세하게 줄어들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인터넷 이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게 몇 배 더 늘어나고 뭐 그러지는 않는다. 집에 컴퓨터 있고, 인터넷 까는 사람은 까는 거지, 부자라고 회선을 몇 개씩 떠 깔고 그러지는 않는다. 그리고 진짜 부유층이라면 인터넷 말고도 다른 취미가 많겠지. 현실적으로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자들이 부유층이거나 그렇지 않는가?

이 표에서 중요한 현상은 바로 200만원 이하 소득층들의 이용률이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소득 계층들을 보면 100명중에 20명 이상 꼴로만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결국 이 표에 나타난 현상은

〈표 2〉에 나타난 현상은 월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다.

실제 답안에서의 표현은 위의 표현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것이다. 여기까지를 무시히 마쳐야 이제 겨우 문제 풀이의 한 계단을 올라 선 것이다. 휴~

#### GUIDE

〈표 2〉의 현상을 정확히 이해했는가?

실제 이 시험에 응시하거나, 이 문제를 푼 수험생의 글을 보면 거의 70% 이상이 표 2의 현상을 소득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높은 현상이라고 정리한다.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러분은 어떤가? 만일 이 자료를 스스로 써보거나, 아니면 최소한 머리 속으로라도 훑어보면서 따라오는 학생이라면 이 부분에서 자기를 체크해 봐야 한다. 〈표 2〉의 현상을 저소득층이 인터넷 이용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한 학생이라면 사실, 논술고사에 자질이 있는 것이고, 표를 읽어내는 분석력의 기초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도 실망하지 마라.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기 때문이고, 아직 살짝살짝 숨어있는 함정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의적 해석을 삼가고 있는 그대로 자료를 이해, 분석하는 경험에 부족할 뿐이니까 말이다. 이것도 일종의 대학의 함정이라면 함정인데, 이런 함정이야, 수능언어를 풀면서도 지겹도록 싸워오지 않았는가?

## 〈자료 1〉과 〈자료 2〉에 나타난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

현상을 찾았으니, 이제 의미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린다.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조건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내 맘대로 의미를 찾으면 되나? 그렇게 된다면 〈표 1〉에서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재미있게 놀고 삶의 즐거워진다’는 의미를, 〈표 2〉에서는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를 찾으면 되나? 그렇게 된다면, 학생마다 각기 다른 의미를 찾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답안을 채점할 수가 없다. 그럴리아 없겠지만, 답안지 들고 찾아와서 “저는 왜 떨어진 겁니까?” 하는 애한테 대학이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조건을 달아놨다. 바로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제 제시문 (가)를 보자.

### TIP

#### 논술 문제는 결국

지시 논술하라 / 검토하라 / 해설하라 / 비교하라

대상 〈표〉에 나타난 현상을 / 두 글을 / 이 글에 나타난 문제점을

조건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 세 글을 모두 활용하여 / 주어진 글들을 참조하여

의 세 가지다.

수능 언어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안 지키면

뭘 써도 소용 없다.

지금 보면,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현상을 찾는 것까지는 했는데,

의미를 쓰려고 했더니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라는 조건이 우리를 괴롭힌다.

언제나 〈조건〉을 찾아야 하고,

조건이 붙었을 때와

조건이 붙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봐야 한다.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을 때의 〈의미〉.....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했을 때의 〈의미〉.....

우리는 전자와 비교하여

후자에 주목해야 한다.

수능에서도 보니까 조건을 못 보거나 무시하면 그냥 틀리더라.

수능은 한문제 틀리고 그만이지만

논술은 대가가 아주 클 것이다.

유의하라.

## ②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main text를 공략하라.

〈제시문 가〉를 요약해 보자.

〈가〉 ①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전통적 지식이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전  
환되고 있다. ② 그런데 지식이 정보로 전환될 때에는 대개 의미의 굴절이 일어난다. 이  
런 까닭에 지식과 그 지식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한 정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 ③ 그  
렇다면 지식과 정보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④ 정보사회학자들의 설명을 요약하면 그 차  
이는 다음과 같다. ⑤ ‘지식’은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사유와 실천 활동을 통해 부여한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의미의 집적물이다. ⑥ ‘정보’는 잠재적 수요자를 위해 지식에서 추  
출한 데이터의 기술적 가공물, 이를테면 지식을 요약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의미의 집적  
물이다. ⑦ 또한 지식은 체계성과 복합성이라는 그 속성상 지적 훈련을 거친 엘리트만이  
접근하고 획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⑧ 이에 비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정보는 대중  
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전달과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켜 주며, 저장과 가공을  
용이하게 한다. ⑨ 예를 들어 오늘날 인터넷이 학문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  
매제가 된 것은 그것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정보교환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⑩ 그러나 이렇게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정  
보사회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⑪ 디지털 정보의 경우 제공자와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런 일은 실제  
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⑫ 그리고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한 자가 특정한 목적에 이  
를 악용할 위험 역시 상존한다. ⑬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  
유가 되는 것처럼, 정보의 활용에도 양면성이 있음을 잊지 말자.

→ ⑬ 정보화 사회는 그 자체로 축복이 아니라 사용자의 역할에 따라 명암이 갈라질 것이다.

본문을 요약해 보자.

### GUIDE

본문을  
있는 그대로 요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제시문 가〉를 실제로  
‘바탕으로’ 하기 위하여 〈가〉글  
을 살펴보기로 한다. 논술 제시문  
을 읽을 때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  
은 글의 요지를 있는 그대로, 선  
입견과 자의적 해석을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 요약, 정리하는 것이  
다.

논술고사 출제자들은 수능 언어영  
역처럼 글의 구성구석을 갖고 문  
제를 내기보다는 하나의 글의 전  
체 요지와 요점, 논점을 토대로  
일단 문제를 출제하게 된다.

나름대로 글 하단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붙였는데, 어떤가 이해가 되나? 더 혼란스러워? 이제 말로 좀 설명을 해보겠다. 이 글은 사실 어려운 글은 아니다. 다만, 학생들이 보기에 특별할 것이 없고 별 내용도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교과서 뭐 이런 데서 늘 듣던, 소위 ‘뻔한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에 더 문제다. 그래도 냉정하게 한번 쪼개 보면

일단 ①번 문장에서는 ‘지식’ 사회가 ‘정보’ 사회로 변했다고 한다. 그리고 ②에 보면, 그 둘을 구분해야 한다고 한다. 그렇지? 그리고는 ④부터 ⑨까지! 본문의 절반 이상을 <지식과 정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무시하는 애들이 많아서 문제야. 본문을 읽어보니까,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그래 과연 뭐라고 하는 건가?

**지식 - 사유, 실천, 체계, 복합**

**정보 - 가공, 요약, 기본, 수월**

위의 개념들은 본문에서 대략 각각의 특징적 개념들을 뽑은 것이다. 저걸 이해해야 한다. 내 머리로 납득해야 한다. 지식은 ‘사유’를 통해 형성된다고 한다. 공부를 대략 12년 했을텐데 ‘사유’ 한 적 있나? 집에 가는 버스에서도 PMP로 인강듣는데, ‘사유’할 시간이 있나? **실천**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여러분의 공부는 **체계**를 갖추고, 단편적이지 않으며 **복합**적인가? 선생님은 수업할 때 이 대목에서 ‘전태일’을 예로 든다.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의 문제에 대해 오래 **사유**하지 않았을까? **실천**은 너무 강하게 해서 안타깝고, 나름대로 노동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삶과 함께 체화된 **체계**와 **복합**성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지식은 이런 거다.

‘정보’는? 일단 수용자의 입맛에 맞도록 **가공**된 것이고, 전체가 아닌 **요약**된 것이다. 그리고 심화되지 못한 **기본**적인 것이고, 사유와 실천을 통해 힘들게 얻는 게 아니라 **수월**하게 얻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하철 메트로 신문을 든다. 사진하나, 짧은 기사 하나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12년간 배워 온 그것들로 세상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여러분을 사유하고 고민하고 힘들게 했을까? 아니면 참 쉽죠~ 하면서 편하게 **가공**되고 **요약**된 채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을까?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제시문 가>의 절반 이상은 이렇게 과거 지식 사회와 정보 사회의 차이를 다루고 있다. 그 차이는 단편적인 차이가 아니며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별 이야기 아닌가?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하지 않겠는가?

본문을 계속 요약해 보자.

제시문 하나 갖고 더럽게 오래 읽어? 응? 그래도 할 수 없다. 수업시간에는 이렇게 못

#### GUIDE

여러분은  
(가)에서  
지식과 정보의 차이에  
주목했는가?

이 부분은 본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니 응시자의 80% 이상은 이 부분을 외면하고 글을 쓴다.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예 건들지를 않는 것이다.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가)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는데, (가)의 상당 부분을 지식과 정보의 차이가 차지하고 있다. 지식은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것인데, 정보는 단편적이고 요약된 것이다.

생각하라. 이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식의 시대에서 정보의 시대로 전환된다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세계를 단편화된 정보로 이해할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어려운 생각이 아니다.

하지만, 보조 자료로 하는 거니까, 천천히 가보려고 한다. 이제 나머지를 이어 보자. ⑧, ⑨ 앞에서는 사실 정보가 좀 없어 보이고, 지식이 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정보라고 나쁘기만 하겠는가? 그래서, ⑧, ⑨에 오면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면도 언급이 된다.

⑧ 이에 비해 디지털 형태로 전환된 정보는 대중의 접근을 수월하게 하고, 전달과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감소시켜 주며, 저장과 가공을 용이하게 한다. ⑨ 예를 들어 오늘날 인터넷이 학문 발전과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촉매제가 된 것은 그것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정보교환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정보의 장점은 과거 엘리트만이 지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대중의 접근성이 쉽다는 것이다.(\*\*\*) 물론 표 2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2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그렇지도 않잖아?) 그리고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뭔가 빨리, 쉽게, 왕성하게 배우고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문과 산업 발전을 낳았고, 빠른 속도의 정보 교환과 광범위한 의사소통을 가능(\*\*\*) 이것도 표 2를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은 끼지 못하고 있어)하게 했다. 한마디로 이 부분은 정보화 사회 들어 좋아진 것들이다. 이제 여기에 바로 이어서 정보화 사회의 단점이 나온다.

⑩ 그러나 이렇게 편의성과 효율성이 제고된 정보사회가 반드시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⑪ 디지털 정보의 경우 제공자와 사용자의 익명성으로 인해 오용되거나 남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그런 일은 실제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⑫ 그리고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한 자가 특정한 목적에 이를 악용할 위험 역시 상존한다.

정보화 사회의 단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 <정보의 오용과 남용>이다. 정보가 잘못 사용되고 마구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실제로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한다.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는데 읽는 나는 모른다면, 섭섭한 일이다. 생각해야 한다. 정보의 오용, 남용..... 그런 일이 빈번하다. 뭘까? <논술>에 대해서도 이 자료는 선생님들의 실명을 걸고 제공되는 것이어서 영 헛소리는 쓰기 어렵다. 그러나 네이버 카페 같은 곳, 지식인 같은 곳에 보면 논술고사에 대해서도 별별 소리가 다 돌아다닌다. 논술고사가 올해 폐지되었다느니, 논술고사는 스킬 몇 개랑 배경지식이면 땡이라느니, 대학은 채점도 대충 한다느니..... 정보의 오용이고 남용이다. 네이버 지식인만 그런가? 소위 우리가 믿는 유력한 일간지들, 방송들은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 황우석 교수 사건 때 그렇게 매일 떠들어대던 보도들, 뉴스들은 다 정확했는가? 사과 한마디 없이 정보를 오남용하는 언론 매체들은 대.단.히.많.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은 휘둘리고, 뭔가 일이 생긴다.

정보를 독점적으로 장악한 자가 정보를 특정한 목적에 이를 악용할 위험 역시 상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대북 관련 모든 정보 채널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부에서 전달하는 대북 관련 뉴스를 그대로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도 언론 분야에서 독점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독점 언론이 감을 가리키며 꿀이라고 해도, 결국 계속 그런 식으로 보도하다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되고, 그 정보를 수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언제가 대학이 ‘기여입학제’를 추진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만약에 언론 정보를 독점적으로 다루는 특정 신문과 방송이 ‘기여입학제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 대학발전기금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윈윈 전략이며, 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선진적 제도’라고 계속 정보를 제공한다면 어떻게 될까? 안 그래도 사유하지 못하고, 체계적이고 복잡적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며 신문과 방송에서 주어 들은 이야기를 자기 생각이라고 믿고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비판적 사고를 키워, 이러한 정보에 대항하여 따지고, 질문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보의 진위와 사실성을 따져가며 그것을 받아들이겠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살아가지 않는가? 여러분도 벌써 특정 포털 사이트의 메인 창을 통해, 방송과 뉴스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 요약을 마쳐 보자.

이제 반드시 요약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자.

- 1) 지식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
- 2) 정보 사회는 학문,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왕성한 정보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점
- 3) 그러나 정보의 오남용, 독점적 사용에 따른 폐해가 예상된다는 점

이다. 맞나? 이제 요약을 끝내보자.

엘리트 중심의 심화 지식이 대중 중심의 단편적인 정보로 대체되는 정보사회는 정보 이동, 교류의 확대로 산업과 문화 발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정보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 요약문은 우리가 지난 호에서 답안을 구성할 때 (가)에 대해 약 100자를 할애했기 때문에, 100자 정도로 요약한 것이다. 요약은 이렇게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디마디의 뜻을 이해하고 옆두에 두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제 표 1, 2의 의미를 찾아보자.

지겹지 않나? 나는 지겹다. 아주 천천히 하느라 죽을 맛이야. 그래도 하다보니, 뭐 하나, 어느 고비 하나 쉬운 게 없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분도 참 고생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한 문제라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어느 대목에서 무엇을 놓치고, 무엇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출제의도에서 멀어지고 답에서 멀어지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겹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우리는 지금까지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현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하는데, 대학이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하라는 조건을 달아놓는 바람에 <제시문 가>를 읽는 데 시간을 지체했다.

### 표 1의 의미

<표 1>은 인터넷 가입자 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 급증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봤을 때, 이는 **첫째**, 우리 사회가 소수 엘리트 중심의 지식 사회에서 다수 대중 중심의 정보 사회로 급속히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둘째**, 대중들이 ‘정보의 긍정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보 교환의 범위와 속도를 높여 산업과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물론 더 들어가면, **셋째**, 지식에 비해 정보가 단편적인 만큼, 정보의 오남용과 악용에 본격적으로 노출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 답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마지막 사항은 여기서 ‘의미’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답안의 후반부에서 <문제집>으로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둘째까지만 ‘의미’의 범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

### 표 2의 의미

<표 2>는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은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줬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제시문 가>를 보면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바로 정보의 광범위한 교류를 통해 서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여기서 소외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정보화 사회가 대중의 정보 소통을 확산시키고, 장밋빛 미래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표 2>를 보면 정확한 사실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제 이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정보화 사회에서도 경제적 빈곤층은 그 긍정적 영향에서 소외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이들은 정보 교류에서 소외되어 또다른 정보에 있어서도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둘째 부분은 답안 구성상 후반의 ‘문제집’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첫째’ 까지를 ‘의미’로 제시할 수 있다.

#### GUIDE

#### 의미의 발견... 쉽지 않지?

지금 표 1, 2의 의미를 찾고 있는데,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러나 사람이 찾지 못할 것은 아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표 1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의미, 표 2에서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 정도만 찾아도 무방하다.

생각해 보자. 정보화 사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었다. 이용자 그룹은 단점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비이용자 그룹은 장점에서 소외될 위험이 있다. 이게 바로 정보화 사회의 그늘이다.

물론 대안도 이를 뒤집는 방향에서 도출될 것이다. 이용자들은 정보화 사회의 위험성을 극복해야 하고, 비이용자들은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 측면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IP 7**

제시문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화하려 노력하라.

앞에서 보면  
〈제시문 가〉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제시문은 아니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하고 어려운 글인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글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아니라면 미안...)  
그러나 막상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그 뜻을 이해했느냐 물으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글을 그저 ‘하는 소리’로 들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월,화,수,목,금에 웃으면서 이불 정리하고 나가라고 하면  
그건 그냥 하는 소리로 듣고 안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요일쯤 오늘 이불 안 정리하고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그건 그저 하는 소리로 들을 수 없다. 흉내라도 내야 한다.

글도 마찬가지다.  
주체의 자세가 독해력을 좌우한다.  
독해의 방법, 독해의 요령, 다 좋다. 그런 것도 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지식이 무엇이고, 정보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 차이를 생각해 볼 수는 없었을까?  
정보의 오남용의 사례를 하다 못해 여러분이 그간 지식인에서 봤던  
엉뚱한 정보(가끔 있잖아)라도 떠올려볼 수는 없었을까?  
정보화 사회는 대중이 정보의 주체로 그 교류에 참여한다는 부분을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생각할 수 없었을까?

시험장에서 누구나 제시문을 접하지만,  
그것을 실체감있게 자기 머리로 알아들으려고 노력하는 학생은 드물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아닐까?

## 8 비교적 잘 쓴 편인 학생 답안을 읽어보자.

### 실제 학생 답안 보기

**표 1에 담긴 현상**은 인터넷 가입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 따르면, 기존의 엘리트층의 향유물이었던 전통적 ‘지식’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의하여 저장과 가공이 유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변모하였다. **결국, 표 1이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 가입자수의 증가와 함께 ‘정보’로 인하여 학문과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2가 나타내는 현상**은 03, 04, 05년의 소득별 인터넷 이용률이 모든 계층에서 조금씩 증가하였지만, 소득 100만원 미만의 계층에서는 특히 증가량이 낮고 절대적인 수치도 낮은 반면에, 3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증가량이 높고 절대적인 수치도 높다는 것이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제시문 (가)에 따르면**, 오랜 지적 훈련을 받은 엘리트 계층만이 접근할 수 밖에 없었던 ‘지식’은 100만원 미만 계층에게 전달될 수 없고 이 ‘정보’를 누린 고소득 엘리트 계층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현상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정보가 남,오용되고 정보를 독점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오랫동안의 사유와 실천을 통한 체계적이고 복합적 의미의 전통적 지식이 사라지고 요약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만 남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식을 유일히 이해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모두 ‘정보’만 쓰기 때문이다. 셋째, 100만원 미만의 계층이 정보에서 소외되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정보를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며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에 대한 정보장려도 필요하다.

#### GUIDE

여러분도 한번  
그간의 학습을 토대로  
옆의 글을 평가해 보자.

옆의 글을 보면 성적이 B-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답안이 논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이행하고자 노력했고(C+), 여기에 이어 제시문의 핵심 의미와 출제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라도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한참 배우고 있는 중의 답안이다.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정도면 훌륭하다. 무엇보다 논제대로 겸손하게 답하고 있고, 답안의 내용이 적어도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줄줄 늘어놓고 있지는 않다.

B-

## 실제 학생 답안의 첨삭

표 1에 담긴 **현상**은 인터넷 가입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다가 2003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 따르면, 기존의 엘리트층의 향유물이었던 전통적 ‘지식’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의하여 저장과 가공이 유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로 변모하였다. →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표 1인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 가입 지수의 증가와 함께 ‘정보’로 인하여 → 정보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학문과 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 문제가 요구한 개념들이 직접적, 명시적으로 잘 답변되었다.

→ 이 문단은 좋다. 이 정도 감각이야.

표 2가 나타내는 현상은 03, 04, 05년의 소득별 인터넷 이용률이 모든 계층에서 조금씩 증가하였지만, 소득 100만원 미만의 계층에서는 특히 증가량이 낮고 절대적인 수치도 낮은 반면에, ① 300만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증가량이 높고 절대적인 수치도 높다는 것이다. 이 표가 의미하는 것은, 제시문 (가)에 따르면, 오랜 지적 훈련을 받은 엘리트 계층만이 접근할 수 밖에 없었던 ‘지식’은 100만원 미만 계층에게 전달될 수 없고 ② 이 ‘정보’를 누린 고소득 엘리트 계층만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①은 사실과 다르다. 큰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일정 소득 이하의 계층이 이용률이 적다는 것인데, 사실 답안을 보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답을 적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순간순간 파악해야 한다.

→ ② 글쓰기에는 자기 검열이 있어야겠지. 정말 그런가? 하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한다.

→ 인터넷 따위 좀 쓴다고, 비약적으로 성장하지는 않겠지? 포인트를 이쪽에 뒀야 할까? 아니면 저소득층은 그나마도 소외되어 있다는 데 두어야 할까? 글쓰기에는 자기 검토와 판단의 연속이다. 최소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정도를 계속 따져물어야 한다.

→ (가)를 이렇게 두 번 언급하는 게 효과적이었을까? 아니면 한번에 끝내는 것이 효과적이었을까?

위의 현상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정보가 남,오용되고 정보를 독점한 사람이 특정한 목적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오랫동안의 사유와 실천을 통한 체계적이고 복합적 의미의 전통적 지식이 사라지고 요약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만 남는다는 것이다. ③ 왜냐하면 지식을 유일히 이해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모두 ‘정보’만 쓰기 때문이다. 셋째, 100만원 미만의 계층이 정보에서 소외되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③ 본문을 토대로 보면, 다수 대중이 단편적인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엘리트가 모두 〈정보〉만 쓴다는 말은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 GUIDE

첨삭의 실례를 소개한다.

그러나 첨삭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기 답안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좌측의 경우처럼 실제 첨삭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근의 논술고사는 작문이 아니므로 제시 답안이 있다면 자기 혼자서도 검토하면서 자기 첨삭을 해야 한다. 이 답안은 일정한 완성도와 함께 일정한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를 소화한 학생이라면 사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답안에서 어디가 문제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 첨삭시간에는 학생에게 자기 답안의 어디가 어떻게 문제이고, 이 문제의 어디를 어떻게 소화했고, 하지 못했는가를 이야기하게 할 때가 있다. 수업 중반을 넘어서 학생들은 자기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기도 한다. 그래야 하지 않을까?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첨삭, 첨삭을 위한 첨삭보다는 문제를 완벽히 소화,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첨삭은 그 자기 검열, 자기 평가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것이다.

→ 그리고 부연을 붙이려면 첫째와 둘째 모두에 붙이든지 해야 한다. 이렇게 한쪽만 붙이면 안된다.

→ 첫째, 둘째를 보면, <가>를 바탕으로 한 답안은 맞지만, 그리고 출제자가 의도한 문제점과 방향이 유사하지만, 어찌보면 <가>를 그대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 그래서 <대중이 비판과 검토 능력이 결여된 채 압축된 정보만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라는 전제가 있어야 비로소 <가>를 바탕으로 <표 1>의 현상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된다.

→ 천천히 생각해 보자.

→ <가>는 정보화 사회가 이런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표 1>을 보니, 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보 이동의 수단인 인터넷을 쓰거든. 그렇다면 이 많은 대중이 비판적 검토 능력과 판단 능력을 상실했을 때, 바로 제시문 <가>가 지적한 정보의 오남용과 독점과 악용이 구체적인 현실 문제로 드러나게 되겠지.

→ 다시 말해 <오남용 가능성> 자체가 문제점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대중이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면, 오남용되고 악의를 갖고 전달되는 정보에 휘둘리고, 믿고,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 하는 등등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지. 여기까지 가야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를 현실에 연결시키고 적용시키면서 차근차근 문제점을 지적해야지. 지금처럼 <가>의 본문을 거의 그대로 옮기면 안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응방안은 정보를 좋은 방향으로 → 좋은 방향이란? / 비판적 검토를 거쳐 사용하며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소득 100만원 미만 계층에 대한 정보장려도 필요하다.

→ 대응방안이 좀더 성의 있어야 한다. 분량 조절에서도 사전에 양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썼어야 한다.

→ 그리고 출제 의도를 고려하면

→ 이용자 그룹은 비판적 정보 사용 능력을, 비이용자 그룹에게는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 가능성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균형 있게(표 1, 2를 적절히 안배하고, 서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정리했어야 했다.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제시문 분석을 마치기 전부터 논제만 보고도 답안의 순서, 각 내용별 순서는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처럼 나름대로 제시문 분석을 마친 이후에, 사전에 해 놓은 답안 구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 때, 부분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지만, 논술 문제 풀이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경우라면, 애초에 한 논제 분석을 통한 답안 구성과 나중에 실제로 글을 쓸 때의 구성이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된다.

[illegible][illegible]

**좌측과 같은 작업은 모든 논술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

논술로 수사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얻는 나게 분석과 쓰기 능력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사소한 과정도 성실하게 거칠 때,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자기 실력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다.

건반 떨지 말고, 배웠으면 따라하라.

**TIP 8**

여러분이 논술 초보고,  
아직 자신이 없다면.....  
논제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좌측의 자료처럼 원고지에 분량과 가상의 문장의 형태를 미리  
구상하는 이 작업을 반드시 하라 !  
답안 성패의 90%가 달려 있다.

사람은 말이지,  
그래도 자기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 알거나,  
분명하게 할 일을 알고 있으면 마음 편한 거야.  
제일 갑갑한 상황은  
대체 뭘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야.

여러분이 논술 답안을 한번이라도 써봤다면 잘 알거야.  
썩초보라면, 논제를 정말 대충 보게 된다고,  
그래서 글쓰기가 참 힘들어, 첫마디부터 뭘로 시작해야 할지 애매하거든.

썩초보가 아니라 그래도 논제를 분석해서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워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볼까? 이번 문제에서 <현상과 의미>를 쓰라고 하면  
사실 문지도 따지지도 않고 <현상>과 <의미>만 쓰면 되는 거야.  
물론 이것으로 다는 아니어서,  
현상이라는 말을 스스로 내뱉었다면, 현상 비슷한 것을 찾고 써야겠지.  
그리고 의미라는 말을 내뱉었다면, 의미라고 할 수 있을만한 것을 찾고 써야겠지.

그런데, 학생들이 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도.....  
대학 입학설명회장에서 교수님들이 아무리  
논제가 시킨 것만 그대로 따라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줘도.....  
대학이 발표한 논술 자료에서 <논제의 요구를 충실히 수용하라>고 말해줘도.....  
이걸 다들 이걸 <그냥 하는 소리>로 생각한다는 게 문제야.  
그래서, 논술을 오래 배웠다는 학생들의 답안을 봐도  
시키는 거라도 - 내용은 틀리더라도 - 물은 거에라도 답하는 답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이걸 반드시 해  
거의 강박증 환자처럼 논제에 승부를 걸어.

### ③ 답안을 써보자.

#### 문제 1

〈제시문 가〉를 바탕으로 〈자료 1〉과 〈자료 2〉에 담긴 현상과 의미를 설명하고,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을 논술하시오.(800자)

<sup>1</sup> (가)는 심화된 지식이 단편적인 정보로 전환되면서, 정보의 대중적 사용으로 인해 산업, 문화가 발전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동시에 정보의 오남용과 악용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sup>2</sup> 〈자료 1〉에 나타난 현상은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원만한 증가세로 접어든 현상이다. <sup>3</sup>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1,200만명이 넘는 대중이 정보 사용자로 등장하고, 이를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sup>4</sup> 〈자료 2〉에 나타난 현상은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률이 저조한 현상이다. <sup>5</sup>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들이 정보 활용과 소통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sup>6</sup> 이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은 첫째, 정보 이용 계층들이 요약, 정리된 정부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해 현실과 사실을 왜곡된 채 이해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sup>7</sup> 둘째, 정보 이용에서 소외된 계층은 정보교류를 통한 발전의 가능성마저 차단 당해, 결과적으로 계급간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sup>8</sup>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정보 이용자 그룹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sup>9</sup> 그리고 정보 이용에서 소외된 그룹은 정보 이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경제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 GUIDE

##### 예시답안의 스타일을 보고 따라하라.

최근 논술고사는 문항별로 답안이 짧다. 길어봐야 800자다. 1,000자가 넘어가면, 그만큼 요구사항이 많다. 이것은 길고 장황하게 서술하지 말고, 문항이 요구한 답안을 간결하게 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시답을 보면 몇가지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다.

1. 장황하게 늘어지는 문장은 금물이다. 알뜰하게 할만만 딱딱하고 빠져야 한다. 다시 말해, 한 가지 요구에 대해 답했으면 딱 자르고 다음 요구에 대한 답으로 미련없이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답안의 분량을 사전에 미리 정해둬야 한다.
2. 〈A는 B이다〉가 기본 문형이다. 본문을 보면 〈현상은~이다〉, 〈의미는~이다〉, 〈문제점은~이다〉의 형태로 대학이 논제에서 요구한 개념어를 그대로 받아서 서술어 ~이다로 답하고 있다. 확신이 없을 때 구구하게 말이 늘어진다. 단호하게 〈이다〉로 끝내고, 그 속에 들어갈 말을 고심하고 정리해서 만들어내라.